

II. 主要 懸案

1. 國內 高金利 現象과 金利 自由化

- 動向: 8월 19일 현재 회사채 수익률 13.35%, 콜금리 11%
- 高金利 原因: 통화 관리 강화, 기업 설비자금 수요 증대, 시중유동성 축소
- 展望: 고금리 상태 지속 전망(회사채 수익률 13.0-13.4%)
- 1-2년 정기 예금 금리 자유화로 시장 금리 상승 우려

- 動向

- 회사채 수익률은 8월 9일 잠시 진정되었다가 재차 상승하여 8월 19일 현재 13.35%로 고금리 지속(7월말 12.71%)
- 콜금리는 시중 은행들이 주식 투자와 민간 대출을 축소하여 단기 자금 사정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8월 19일 11%로 하락함.(8.3-8일까지 25% 유지)

- 高金利 持續 原因

- 정부의 경기 과열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관리 강화(은행에 대한 지준 강화)
- 2/4분기부터 시중 유동성이 점차 축소: · 마아살 k(M2/GNP)는 1/4분기 1.72, 2/4분기 1.59, M3/GNP는 1/4분기 5.63, 2/4분기 5.21로 추정
- 최근 기업의 설비 자금 수요 증대: 7월까지 산업·중소기업·장기신용은행의 시설 자금 대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4.6% 증대(3조 1,216억 원)

- 展望

- 하반기에는 자금 수요 요인이 우세하여 高金利 지속(13.0-13.4%)
- 하반기 통화 공급 규모 10조 원중 해외 부문의 통화 공급 50-60억 달러를 빼면 실질 국내 여신 규모는 5조 원 정도에 불과
- 반면, 국내 경기 상승은 지속되어 기업 설비 자금 수요는 증대 전망

- 3段階 金利 自由化의 실시

- 대상: 1-2년 정기예금 금리, 시기: 자금 시장 불안이 해소되는 시점
- 효과: 대출 금리 상승, 금리 변동성 증대

- 下半期 金利 安定 課題

-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확대와 금리 자유화 실시 내년 연기
- 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 관리 지표로 시중 금리 적극 활용

(손 영 기)